

News

은행대출·보험·펀드 상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한국경제

내년 3월 25일부터는 은행 대출과 보험상품 등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까지 '단순 번심'처럼 아무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구체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정...

코로나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3월 이후 30조 빚내 버텼다

데일리안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에 빌린 돈이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빚으로 운영자금, 생활자금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내년 3월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부실이 부실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5곳 중 4곳 금리 인상...소비자 부담 커졌다

아주경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요청에 기인한 행보... "당국에서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한 뒤 은행들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을 통한 대출 증가폭 제어에 나선 상황"...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감독부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되나

세계일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이 원인...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영업도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생보사 점포 정리 가속

데일리안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5년 새 오프라인 점포 4곳 중 1곳 가까이를 없앴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판매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장 영업 조직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한 상품들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출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불완전판매 줄었지만, 오히려 민원은 더 늘어"

이데일리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민원건수는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서며 금융업종 중 가장 높은 수... "보험사도 소비자보호 규제준수 여부 확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검찰, '라임 판매 증권사'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뉴스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라임 관련 증권사 수사에 대한 자료 입수 차원... 지난달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을 압수수색 진행...

홍남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10억...가족합산도 유지"

뉴스스

정부가 '동학 개미' 반발에 주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근 글로벌 경제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